

인재유치 양성을 위한 중국의 혁신드라이브 전략

홍성범 동북아사업단장/한·상해글로벌혁신센터장 sbhong@stepi.re.kr
과학기술정책연구원

天時不如地利, 地利不如人和(천시불여지리, 지리불여인화)

“하늘의 때는 지리적 이로우만 못하고 지리적 이로움은 사람의 화합만 못하다.

일찍이 맹자는 이와 같이 ‘사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중국은 사람이 많다. 2013년 기준 13억 6,000만 명. 한국의 전체인구보다 많은 성(省)만 해도 광둥성 1억 644만, 산둥성 9,733만, 허난성 9,413만, 쓰촨성 8,107만, 장쑤성 7,933만, 허베이성 7,333만, 후난성 6,691만, 안후이성 6,031만, 후베이성 5,799만, 저장성 5,498만 등 10개나 된다. 많은 인구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는 인재정책을 중시하고 있다. 이는 양적 지표보다는 국가발전을 리드하는 인재의 질적 수준을 강조한 것으로, 인구 대국(大國)이지 인구 강국(強國)이 아니라는 인식의 반영이다.

중국은 올해 초 발표한 13차 5개년계획(2016~2020년)에서 핵심 키워드로 ‘혁신(創新)’을 제시하였고, 5월에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국가혁신드라이브 발전전략 강요(国家创新驱动发展战略纲要)’를 발표하였다.¹ 13차5개년계획에서 제시한 혁신드라이브 전략의 액션프로그램을 구체화하기 위한 조치였다. 특히 혁신을 추진하기 위한 인재정책의 중요성은 한층 강조되고 있으며, 중앙정부와 각 지방정부 또한 다양한 인재유치 양성 정책과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는 중이다.

1

혁신드라이브의 중국어 표현은 ‘創新驅動’으로 중국은 innovation을 ‘創新’으로 표현하고 있고 일본식 한자인 ‘革新’과 차별화를 꾀하고 있음. 한국어에서도 ‘혁신’으로 표현하고 있어 중국어의 ‘創新’을 ‘혁신’으로 용어를 통일함

중국 중앙정부의 인재정책 프레임워크

중국에는 “중앙에 정책이 있으면 지방에는 대책이 있다(上有政策 下有對策)”라는 말이 있다. 이처럼 큰 땅덩어리와 많은 인구를 가진 중국은 중앙정부 정책과 지방 정책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치밀한 설계에 집중한다. 특히 시진핑 정부의 출범과 함께 큰 틀의 정부 정책들이 제시되면서, 각 지방별로 다양한 맞춤형 정책이 추진되도록 정책의 대폭적인 지방이양(下方)이 강화되고 있다. 지역의 인재 정책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우선 중국 중앙정부의 인재 중시 정책을 리뷰해볼 필요가 있는데, 거시적으로는 중장기 정책-5개년규획-세부 정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0년 5월 후진타오 국가주석은 ‘전국인재공작회의’를 개최하면서 중요한 2건의 문건을 발표했다. 인재의 수월성을 강조하는 국가중장기인재발전규획강요(国家中长期人才发展规划纲要)(2010~2020)와 일반 교육을 강화하는 국가중장기교육개혁및발전규획강요(国家中长期教育改革和发展规划纲要)(2010~2020)다. 이 방침에 따라 각 정부 부서는 12차5개년규획(2011~2015)에 구체적인 인재유치 및 양성 프로그램을 포함시켰으며, 13차5개년규획(2016~2020) 역시 마찬가지다.

백인계획, 천인계획, 만인계획 그리고……

중국은 중요한 정책을 숫자로 표시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인재유치 정책에서 수치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우선 중국 과학기술혁신의 핵심적인 연구기관인 중국과학원이 1994년부터 추진해온 백인계획(百人計劃)이 있다. 중국과학원 지식혁신 공정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이 프로그램은 국내외 우수인재를 유치할 경우 대상 인재에게 200만 위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매년 100명을 목표로 45세 이하의 인재를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현재까지 총 2,145명의 인재를 선발하였으며 그 중 ‘해외’ 우수인재는 1,655명, ‘국내’의 선정자는 312명, 비즈니스 분야 선정자는 145명, 내부 자체 선정자는 33명이다.

2008년 12월, 중국 정부가 아닌 중국공산당 판공청은 해외고급수준인재유치계획(中央人才工作協調小組關於實施海外高層次人才引進計劃的意見)을 발표하였다. 간략히 천인계획(千人計劃)으로 불리는 이 계획은 국가중점혁신프로젝트, 중점 학과와 중점 실험실, 중앙기업과 국유 상업금융기관에 2,000명 규모의 해외인재를 향후 5~10년 내에 유치한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천인계획에서 인재 선정은

혁신인재와 창업인재라는 2가지 트랙으로 선발한다. 특히 창업인재는 독자적인 지적재산권과 발명특허를 보유해야 할 뿐 아니라 관련기술 성과는 국제선진 수준에 도달해야 하며, 중국의 기술 공백을 메우고 시장 잠재력을 가지며 산업화를 추진할 수 있어야 한다. 각 정부 부처 및 지방정부 차원에서 진행하는 해외인재 유치 프로그램들도 있지만, 천인계획은 중국공산당 당 차원에서 추진하는 가장 강력한 인재유치 지원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천인계획을 주관하는 정부조직은 해외고층차인재인진공작소조(海外高層次人才引進工作小組)라는 일종의 정부 TF로서 당중앙조직부, 당중앙통일선전부, 공청단 등 당 조직과 중앙정부의 인력자원사회보장부가 주관한다. 이에 교육부, 과학기술부, 중국인민은행, 국가자산관리위원회, 중국과학원, 외교부, 발전개혁위원회, 공업정보화부,公安부, 재정부, 해외동포사무국(僑辦), 중국공정원, 자연과학기금위, 외국전문가국, 중국과협 등이 참여하고 있다.

2012년 8월, 국내 고급인력의 연구활동을 지원한다는 목적 아래 국가고급수준 인재특수지원계획(國家高層次人才特殊支持計劃), 일명 만인계획(萬人計劃)이 발표되었다. 해외인재 중심인 천인계획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만인계획은 국내인재 중심으로 설계되었다고 할 수 있다. 2012년부터 약 10년 간 자연과학·공학·철학 및 사회과학 분야의 걸출인재, 선도인재, 청년 엘리트를 중점 선발하여 체계적인 지원이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백천만인재공정(百千萬人才工程) 프로그램이 있다. 이 경우는 1996년 7월, 인력관리 주관부서인 중국인사부(현 인력자원사회보장부)가 주관하고, 과학기술부·교육부·재정부·발전개혁위·중국과학기술협회·자연과학기금위원회 등이 공동 추진하여 2010년까지 4,113명이 선발되었다. 2010년부터는 신세기백천만인재공정(新世紀百千萬人才工程)으로 개칭되었다.

이밖에도 중앙정부 차원의 다양한 인재유치 프로그램이 각 부처에서 추진되고 있다. 교육부의 경우 1998년부터 추진해온 장강학자계획(長江學者獎勵計劃)이 대표적인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 장강학자계획은 고등교육 혁신 및 인재유치계획 중 하나로, 우수한 학자를 양성함과 동시에 집중적인 지원을 통해 대학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계획이라고 할 수 있다. 교육부와 홍콩의 재벌 리자청(李嘉誠) 회장이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교수특별초빙제도와 장강학자 업적상으로 구분된다.

중앙정부 인재유치프로그램의 지역별 유치현황

2015년 제12차 국가 천인계획 청년인재와 창업인재는 각각 558명과 57명이 선정되었고, 청년결출인재는 354명이 증가하였다. 전국적으로 만인계획의 특별 지원을 받은 인재는 1,200명 정도에 달한다. 천인계획은 국가 차원과 지방정부 차원 양립으로 추진되고 있다. 중앙정부의 핵심인재 유치정책인 천인계획, 만인계획 그리고 교육부 장강학자 인재프로그램 가운데 특히 청년인재² 유치현황을 각 지역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1 지역별 국가급 청년인재 유치현황(2015)

(단위 : 명)

지역	'장강학자' 중 청년학자	'천인계획' 중 청년인재	'만인계획' 중 청년인재	지역	'장강학자' 중 청년학자	'천인계획' 중 청년인재	'만인계획' 중 청년인재
베이징(北京)	57	109	123	후난(湖南)	4	1	5
상하이(上海)	32	95	40	산시(山西)	1	1	-
장쑤(江苏)	18	52	24	장시(江西)	-	-	2
광둥(广东)	10	56	21	광시(广西)	-	-	1
산둥(山东)	3	10	5	산시(陕西)	10	25	12
저장(浙江)	7	35	15	쓰촨(四川)	7	32	11
톈진(天津)	9	19	6	간쑤(甘肃)	2	4	4
허베이(河北)	-	-	3	신장(新疆)	-	-	1
하이난(海南)	-	-	-	윈난(云南)	-	3	3
푸젠(福建)	3	14	3	충칭(重庆)	2	6	2
랴오닝(辽宁)	4	10	7	칭하이(青海)	-	-	1
헤이룽장(黑龙江)	7	7	11	네이멍구(内蒙古)	-	-	1
지린(吉林)	5	4	8	닝샤(宁夏)	-	-	-
허난(河南)	-	1	1	구이저우(贵州)	-	1	-
안후이(安徽)	11	28	12	티베트(西藏)	-	-	-
후베이(湖北)	19	52	30				

자료 "重大人才工程分地区数据要报", 领导决策信息, 2015. 5.(제19기)

—베이징 : 베이징에는 700여 명의 중국과학원/중국공정원 원사(academician), 1,337명의 천인계획 전문가가 선정되어 있는데, 각각 전국 선정인원의 1/2, 1/3을 차지한다. 국가결출청년으로 선정된 67명은 현지 전문가이며 전국 총수의 1/3을 차지한다. 중앙정부의 특별 지원을 받는 전문가는 4,000여 명으로, 비교적 풍부한 인재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2

중국에서 청년인재는 45세 이하 인재를 말함.

- **안후이** : ‘12.5’기간(2011~2015) 8명의 외국 전문가가 국가 외국인천인계획에 선정되었고, 7명의 외국 전문가가 ‘중국 정부 우정상’을 수상하였다.
- **쓰촨** : 2015년, 쓰촨성 천인계획에는 총 154명의 국내외 유치인재와 19개 혁신창업단체가 후보에 올랐다. 국가 천인계획 당선자 48명, 국가 만인계획 당선자 11명, 백천만인재공정 국가급 당선자 7명, 국무원 특별지원 전문가 88명이다.
- **텐진** : ‘12.5’기간, 국내외 인재 2만 7,000명을 유치하여, 텐진에 있는 해외 유학과 인재는 총 2만 9,000명에 달한다. 인재유치 프로젝트 2,229건을 추진하였고 매년 텐진에서 협력교류를 추진하는 외국 전문가는 연 2만 명을 초과한다.
- **산시** : 2015년 9월까지, 산시성 청년걸출인재는 27명이 선정되었다. 그 중 80년대 이후 출생자의 비율은 과반을 초과하였으며 나이가 가장 어린 인재는 30대 미만이다. 지방정부는 선정 인재에 대해 30~60만 위안까지의 별도 경비를 지원해주었다.

지방정부의 추진 사례 : 상하이

상하이(上海)의 경우 771명의 해외인재가 국가급 천인계획에 선정되었으며, 그 중 24명은 국가급 외국인 천인계획에 해당된다. 이외는 별도로 676명의 해외 고급인재는 상하이 천인계획에 선정되었고 2,787명의 유학인력이 상하이시 푸장(浦江)인재계획에 선정되었다. 상하이에 상주하는 외국인 전문가는 8만 8,000여 명에 달한다.

상하이는 ‘매력중국-외국국적 인재가 꼽은 가장 매력 있는 중국 도시’로 연속 3년간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특히 2015년도 상하이시 과학기술대회에서 수상한 프로젝트의 50세 이하인 청장년 과학기술자는 160명으로, 중국 전체의 52.5%를 차지하였다. 이로써 상하이시의 걸출청장년 과학기술자의 비율은 중국에서 선도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다. 현재 상하이시는 상하이천인계획 외에도, 인적자원 확보를 통한 도시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목표 아래 여러 가지 인재유치 및 양성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지방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재유치 프로그램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표2 상하이시 인재유치 프로그램

프로그램	내용
동방학자계획 (上海高校特聘教授東方學者崗位計劃)	해마다 해외에서 50명의 인재를 유치하고 있는데 계약기간은 3년으로 하며, 선정된 학자에게는 상하이시정부에서 연구비 40~60만 위안을 지급하고 해당 대학에서 매칭 펀드를 조성하여 자연과학 계열은 70~100만 위안, 사회과학 계열은 30~50만 위안의 경비를 제공
포강인재계획(浦江人才計劃)	지원대상자는 해외유학 출신자로 자연과학, 사회과학 연구자, 상하이 지역 창업자 및 상하이시에서 시급하게 필요한 연구 분야 종사자.
EYAS귀소계획(鰲鷹歸巢計劃)	상하이외국전문가국과 상하이국제인재교류협회에서 주관하는 프로그램으로, 세계 100대 대학 박사과정 재학생이나 졸업인재들을 유치하여 상하이에서 취직이나 창업을 지원
결출청년기금(傑出青年基金)	기초학문 영역에서 특출한 성과를 이룬 청년학자들이 독자적으로 연구방향을 설정하고 혁신적인 연구활동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
과학기술영재(科技精英)	상하이과학기술협회 주관 프로그램으로, 지원대상자는 상하이에 등록되어 있는 연구기관·대학·기업체 등에서 이공계 영역 종사자 중 55세 미만자 중에서 선발
서광계획(曙光計劃)	상하이교육기금위원회에서 출자하고 상하이사교육위원회와 상하이교육기금위원회에서 공동으로 주관하는 프로그램으로, 상하이대학 내 청년교수들의 연구역량 향상에 있음
과학기술계명성(科技啟明星)	상하이과학기술위원회에서 추진하는 프로그램으로 우수한 청년학자들을 선발하여 프로젝트 연구비와 연구 성과의 응용개발 비용을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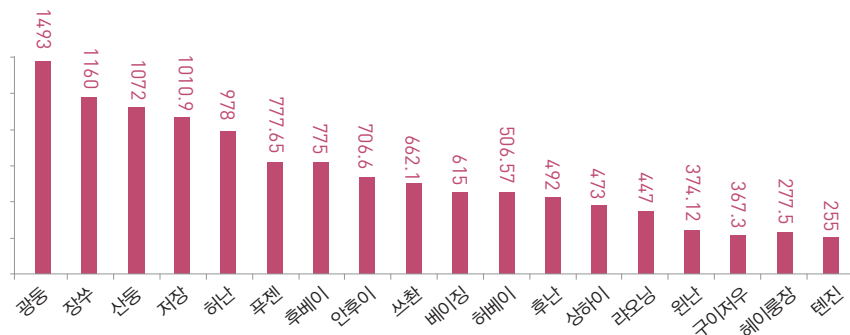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

지역별 전문 기술인재 지식갱신 공정

2016년 중국 전역에서 국가급 고급연수프로그램 300회가 개최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고급 전문기술인재 2만여 명을 육성할 계획이다. 또한 국가급 전문기술인재 성인교육기지 20개를 새로 건설하고, 연 127만 명의 분야별 필요 인재와 전문 기술인재를 육성할 계획이다. 중국의 지역별 전문기술인재 현황을 보면 <그림 1>과 같다.

그림1 지역별 전문기술인재 규모 현황

(단위: 만 명)



자료 저자 작성

18개 성시(省市) 인재자원 총량 비교

- **지린** : 지린성 공업정보화청은 지린대학과 손잡고 전국에서 첫 성급 기업 클라우드 교실을 설립하여 2015년 3월부터 시범 운행한다. 이후 10개의 지방(시)에서 12개의 클라우드 교육서비스센터를 설립하였고, 60개 현(구)에 70개의 클라우드 교육서비스센터를 설립하였다.
- **안후이** : ‘12.5’기간(2011~2015), 기업과 농촌에서 각 유형의 전문인재 연 7만 5,000여 명을 육성하였고, 성급 전문가 서비스 기지 5개, 국가급 전문가 서비스 기지 1개를 건설하였다.
- **허베이** : 2016년 민영기업 경영관리인력 연 1만 명 이상을 육성할 계획이며, 이 중 첨단기술기업과 과학기술형 중소기업 1,000개가 포함된다. 1,000명의 민영기업가 후보인재 육성계획을 실시하고 성급 민영 경제인재 육성기지의 건설을 적극 추진하여 연내에 200개 이상의 기지 건설을 계획하고 있다.
- **광둥** : 화남농업대학은 중국 정부가 지정한 1차 20개의 국가급 전문기술인원 성인교육기지 중의 하나다. 현재까지 누적된 교육인원은 2,196명이며, 성인교육 온라인 학습 플랫폼인 링난학습망(岭南学习网)은 온라인 커리큘럼 133개를 개설하였다. 현재 링난학습망 온라인 등록회원은 1만 7,000명이며, 이미 연 7만 여 명이 링난학습망을 통하여 전문기술인재 성인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였다.
- **텐진** : ‘12.5’기간, 전문기술인재 21만 1,000여 명을 육성하였고, 20개의 전문기술인원 성인교육기지를 설립하였다. ‘텐진시 전문기술인재 성인교육’ 온라인 양성인원수는 16만 명을 초과하였다.

인재양성계획은 혁신드라이브 정책으로써 추진 필요

중국은 12차5개년규획(2011~2015), 13차5개년규획(2016~2020)의 키워드로 ‘혁신’을 강조하고 있다. 즉 혁신은 발전을 견인하는 제1의 동력으로 각 분야의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중국 정부가 혁신을 끊임없이 강조하는 것은 기존의 성장방식의 한계에 봉착, 새로운 성장방식을 모색하면서 나온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혁신’을 바탕으로 한 서비스업 강화, 중국제조 2025, 인터넷플러스 등의 주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표하고, R&D 능력 업그레이드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특히 13차5개년규획에서는 인재를 발전의 핵심자원으로 삼고 인재 발전체제와 정책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를 구축하여 국제경쟁력 있는 인재 양성구조를 최적화하여 인재강국을 건설하겠다는 목표를 명확히 했다.

인재는 혁신의 핵심자원이다. 중국의 중앙부처와 각 지방정부는 최근 몇 년 동안 다양한 인재계획을 추진하여 혁신인재의 유치와 육성에 박차를 가해왔다. 특히 인재유치를 위한 각종 규제와 관련 제도를 개혁했고, 글로벌 차원의 고급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발굴 및 유치기반의 범주를 세계적 차원으로 확장했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W**

참고문헌

- 张成凡 · 周蜀秦, 2011, 区域科技人才创业服务体系研究, 科技与经济 2011年 第6期
- IUD(領導決策信息數據中心), 2015, 重大人才工程分地區數據要報, 領導決策信息, 2015年 5月 第19期
- 홍성범, 2013, 중국의 대학생 과학기술창업과 정책지원, 과학기술정책
- 홍성범 외, 2014, 중국의 과학기술혁신역량 급성장에 따른 대응전략수립, 미래창조과학부
- 홍성범, 2015, 중국의 '인재정책'과 '대중창업',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발표자료